Heaven is an ultimate world where one does not sleep

One can be changed into God by increasing their sacrificial life

(This man refers to the Victor of the Victory Altar.)

All things are Gods. Here, this flower has life. Life itself is God. Flowers die because God in them dies.

Everyone, all of you should become Saviors

Therefore, in order to kill the spirit of death, you should recite the prayer to kill Satan. If one keeps praying, the Satan in this flower dies, too. Although This man gave the prayer to kill Satan, you do not use it. After doing this several times, if you feel tired, then stop. Experiencing this, This man misunderstands it.

This man said that all of you should become Saviors. Each of you should become and save dying people and dying things. Saving dying people is very great. You have an assignment to announce the advent of the Savior widely to the people of world. There is such a duty and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 Victory Altar is now known to the world.

The spirits of ancestors are in their offspring' bodies

If you achieve immortal life and become God, all ancestors in you achieve eternal life. If I achieve immortality, they become Gods as all the dead ancestors are in me, that is the best filial duty. Although they do not know this fact, they hold a ritual service setting the ceremonial table with apples and pears and so on. Do the spirits of the dead come and eat the food? No, they do not. If living people eat food, their ancestors eat it. If a living person eats well and is healthy, his or her ancestors eat well and are healthy.

God is in living people. The other selves of God are in you. So the word 'regarding everyone as God' means that. When This man says that, 'Ah, your body is my body! The body of God is my body!' When you think like that, it is normal.

If one knows the cause of death, they will not die

If one knows the cause of death, they will not die. People die because if the awareness of 'I' lives a life by desires such as attempting desires or getting angry, one's blood decays quickly. That's why you get old, wrinkled, and weak. As decayed blood increases gradually, germs generate in the decayed blood. If germs breed, one catches diseases. So their bodies get decayed. As one's blood decays, their bodies start to decay. Therefore, the blood of God's life decays. Because the spirits of



God in people is decaying little by little, they people die.

There is no happiness in the world of humans

Are there people who live happily in the world? People are deceived and live waiting for happiness someday. Nobody enjoyed happiness since 6000 years. No matter how rich they are, they are not happy. Even the richest and most powerful man is not happy.

Happiness is living in an infinite joy. Only if one is continually happy and ecstasy overflows, that is happiness. Happiness means everlasting ecstasy. Being happy for a while and being sad for a while, or being happy for a while and being worried is not happiness. Heaven is

living forever happily. It is a world without pains. On that day, people will not sleep. People sleep because they are tired. On that day, they will not be tired.

No matter they do tough work, their bodies will be light. Heaven is the world without anguishes. It is the world where has neither diseases nor death. The Savior came to the world in order to make that world.

Evidence that Human Ancestors were Gods

The heart of humans which does not die is in humans because the blood of human ancestors who has lived forever and ever is in his descendants. Also humans hate anguishes. Because the blood of the God who does not know the pain, the difficulties, and the death is in the descendants, they have such a heart. That is evidence that they were Gods. The human ancestors were Gods.

That is, the children of God are Gods, the children of God cannot be humans. So we must reinstate God. Therefore, we should not move as Satan orders. As if one moves as 'I' orders, finally they will die. As the awareness of 'I' is the spirit of Satan, if one acts in Satan, their blood decays.

Only if one increases a sacrificial life gradually, they can live forever

What should we do in order for our blood not to decay? There is conscience in humans. Conscience is a sacrificial spirit. Also conscience is a delightful spirit. So you always have to be happy, laugh and sacrifice all the time. The amount of sacrifice should be 10% for God, then go up 20%, 30%, 40%, and 50%, the blood becomes clean. If one does not do that, they are supposed to exist as Satan and go to hell. Therefore, you should start newly.

The Nirvana Sutra vol 23 writes that This man(the Maitreya Buddha) moves as his other selves all the time. That is, This man is in America, Britain, France, Japan,

and so on. He does not stay only in Korea. In the early day of the Victory Altar, This man showed that He moves as his other selves. This man brought a person from Chungcheong province by leading her by his other self. Additionally, He led people around Korea as his other selves. So everything can be done though He does not stay in the Victory Altar.

Only if one lives between God and me, they can live forever

So if you do not worship because This man is not here, you will go to hell. Only when one has to worship every day, their blood is cleansed and their sins are washed away, then they will become Gods and not die. So you should try your best with all your strength to become Gods. When you go this way, you should not look at the side. You should not look at the side or the back. You should look ahead and run. You do not have to care about what others do. It does not matter whether others commit sins or not. Just look ahead and run! And you can go this way. Seeing the person next to you committing sins and thinking that it's okay that I will commit sins also, it is not right. So you have to try to be God soon.*

– Extracted from the sermon of the Victor Cho Hee Sung of the Victory Altar on Nov. 14th, 2000. Translation: Angela Kim

新金剛經解說

정신희유분(正信希有分) 第六

바로 믿는 믿음이 드물다_(5)

현재의 불자들이 닦고 있는 이승과 삼승(二乘·三乘=소승)법을 다 버리 면 부처님 법 곧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 승법(一乘法)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 니다. 그러기에 석존께서는 이 금강경 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남은 부 분에서도 계속 나를 의식하는 아상(我 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 상(壽者相)을 버려야만 이 경의 요지 (要旨)를 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세상 의 상식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 니다.

여기 금강경 「정신희유분(正信希有分)」에서 석존께서는 석존의 말씀을 뗏목에 비유하는 것은 뗏목이란 여러가지 통나무를 묶어서 목적지에 도착함을 말함인데 바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彼岸) 즉, 구경열반(究竟涅槃)의 경지에 이름을 가리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열반이란 바로 불도(佛道)를 이룬 등 정각(等正覺)을 말하는 것이며 죽음이 열반이라고 하는 요즘의 불교의 가르 침과는 차이가 정반대 의미입니다.

석존 스스로 부처가 아니었기에 열 반(涅槃)의 바른 도를 알 수가 없었고, 그러기에 미래 세상에 오실 미륵부처 님께서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바른 진리의 불법의 가르침으로 열반에 이 르게 하므로, 이 언덕(此岸)에서 저 언 덕(彼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석존께서는 이 금강경 「정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解說)〈11〉

신희유분(正信希有分)」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뗏목에 비유하여 때가 이르러서 법신불(法身佛)인 미륵불이 나타나서 진리(眞理)의 말씀을 하실 때에 석존의 유위법(有爲法)을 버리고 미륵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반드시 귀의(歸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존은 자신이 말씀한 유위의 법을 반드시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물 며 세상의 불완전한 법을 아니 버리겠 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이 제일이라 한 것이며, 바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있는 사회에서의 편견과 아집인 아상, 너와 나를 분별하는 인상(人相), 탐욕이 앞서는 중생상, 부처가 아닌 마구니가 영생하려는 수자상(壽者相)이 없어야 부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금강경을 수억만 번 독송하여도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득무설분(無得無說分) 第七

법을 얻은 것도 없고 정법을 설 한 바 없다_(1)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得 阿褥多羅三藐三 菩提耶 如來有所說法耶 수보리 어의운하 여래득 아뇩다라삼먁삼 보리야 여래유소설법야

수보리야, 너의 생각에는 어떻느냐? 여 래(석존)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무상정등 각)를 얻었다고 여기느냐? 여래(석존)가 법을 말한 바가 있다고 여기느냐?

須菩提言 如我 解佛所說義無 有定法名阿褥



이 언덕에서 저 언덕(彼岸), 구경열반(究竟涅槃)의 경지

多羅三克三菩提亦無有定法如來可說 수보리언 여아 해불소설의무 유정법명아뇩 다라삼먁삼보리 역무유정법여래가설

수보리가 아뢰되, 제가 부처님(석존)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기로는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을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고 부르며, 또한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을 여래(석존)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해설] 석존께서 수보리에게 내가 무 상정등정각을 얻었느냐고 묻는 것과 또한 내가 설법(즉 성불하는 일승의 법)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부분입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석존 최후의 대 승 법문인 열반경에는 다음과 같이 말 씀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반열반경 15卷(권) 범행품(梵行品) 제2 復次善男子 言本有者 부차선남자 언본유자 我昔本有無常無我無樂無淨 아석본유무상무아무락무정 以有無常無我無樂無淨故 現在無有 이유무상무아무락무정고현재무유

阿褥多羅三藐三菩提 言本無者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언본무자 本不見佛性以不見故無常樂我淨 본불견불성이불견고무상락아정

또 선남자여, 말씀에 본래부터 있었다고 한 것은 내가 옛적부터 항상함이 없고, 내가 없으며, 즐거움도 없었고 깨끗함도 없는 것을 있다고 한 것인데, 항상함이 없고, 내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깨끗함이 없음으로써 현재 아뇩다라삼먁삼보리(무상정등정각)가 없었던 것이며, 말씀에 본래부터 없었던 것은 본래부터 부처성품(佛性)을 보지 못하였고, 보지 못하였으므로 항상함과 나와 즐거움과 깨끗함이 없느니라

[해설] 위와 같이 석존께서는 입적할 때에도 다시 또 석존의 제자인 대가섭 에게도 아뇩다라삼먁삼보리가 없었다 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강경에 나오는 석존의 제자인 수보리에게 가 르치는 교법과 같은 의미의 내용입니 다. 그러므로 제자인 수보리가 석존의 말씀을 듣고 석존의 마음속 깊이 있는 뜻을 알고 다음과 같이 그 스승 되는 석존께 말씀을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얻은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다_(2)

何以故 如來所說法 皆不可取 하이고 여래소설법 개불가취 不可說 非法 非非法 불가설 비법 비비법 所以者何 一切賢聖 皆以無爲法 而有差別 소이자하 일체현성 개이무위법 이유차별

왜냐하면, 여래(석존)께서 말씀하신 법은 다 취할 수도 없고 말씀을 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일체의 현인과 성인은 모두 무위법(생멸의 변화가 없는 법신부처님의 참해탈의 법)인데 (현재는)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설] 바로 이 구절이 수보리와 석 존과의 법담(法談)에서 불교의 이상인 구경열반(究竟涅槃)에 관련하여 성불 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석존 께서는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 즉 아뇩다라삼먁삼보리가 없었음을 제자인 수보리에게 올바르게 알려주 는 부분이랍니다.

도 부문이답니다. 또한 성불을 하였으면 바로 노력을 들이지 않는 자유자재의 무위의 법(無 爲法)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제자인 수보리는 스승인 석존께서 부 처님의 법인 무위법(無爲法)을 쓰지 못 하고 세상의 법인 유위법(有爲法)을 쓰 기 때문에 석존(釋尊)의 성불(成佛)을 부정(否定)하는 대목입니다.

무위의 법은 참된 해탈이 된 부처님

에게나 있는 것이요, 벽지불과의 성문 연각인 석존에게는 이런 무위법이 없 었습니다. 그러므로 증일아함경에서 석존은 스스로 나는 일체 모든 것이 영원함이 없다면서 유위의 법을 쓴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석존께서는 법화경에서도 열반의 진실함이 없다고하셨으며 또한 입적하시면서 남기신열반경에는 다음과 같은 법문이 있습니다.

대반열반경 15卷(권) 범행품(梵行品) 제2 復次善男子 言本有者 本有凡夫修苦行心 부차선남자 언본유자 본유범부수고행심 謂得阿褥多羅三藐三菩提以是事故現在不能 위득아뇩다라삼먁삼보리이시사고현재불능 破壞四魔 言本無者 本無六波羅蜜 파괴사마 언본무자 본무육바라밀 以無六波羅蜜故 修行凡夫 苦行之心 이무육바라밀고 수행범부 고행지심 謂得阿褥多羅三藐三菩提 위득아뇩다라삼먁삼보리

또 선남자여, 본래에 있었다는 것은 범부가 고행을 닦아서 아뇩다라삼먁 삼보리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요, 이런 일이 있음으로써 현재 네 가지 마군(四魔=煩惱魔, 陰魔, 天魔, 死魔를 일컬음)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 는 것이며, 본래에 없다는 것은 나에게 본래부터 여섯가지 바라밀다가 없었 다는 것이니, 본래 여섯 바라밀다가 없 었으나 범부가 고행하는 마음을 닦아 서 이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으 려고 한 것이었다.

[해설]... (다음호에 계속)* 明鍾